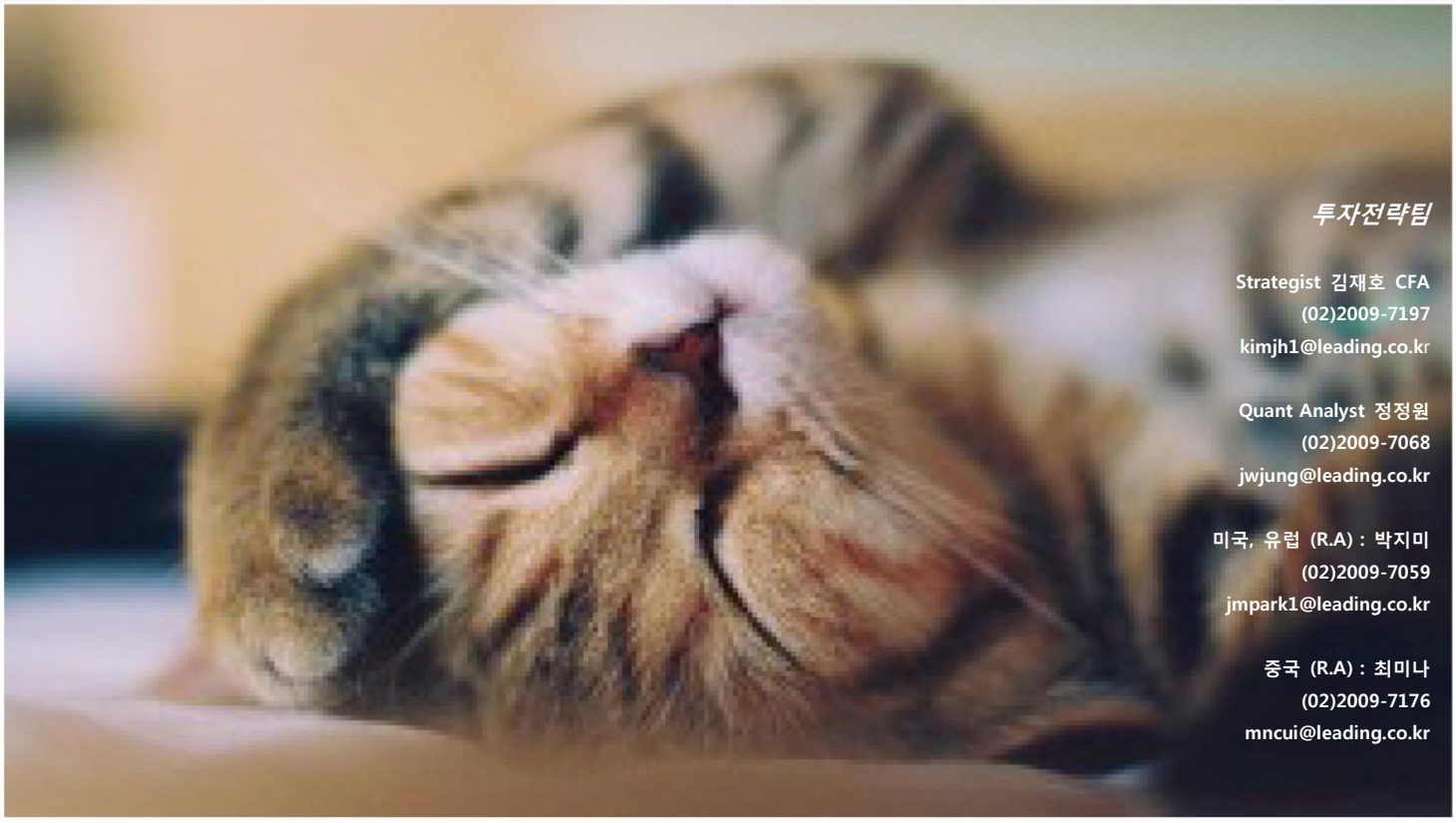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유럽 (R.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R.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 Weekly Global Market 2014. 02.24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rturday |
|---|---|---|---|---|---|---|
| | | | | | | 1<br>중국 1월 제조업 PMI |
| 2 | 3<br>1월 ISM 제조업 지수 | 4 | 5 | 6 | 7 | 8 |
| 9 | | | 12<br>중국 1월 무역수지/수출수입 | 13 | 14 | 15 |
| | | | 19 | 20<br>일본 무역수지/수출수입 | 21 | 22 |
| | | | 26 | 27<br>1월 미국 신규 | 28<br>4월 미 | |

LEADING
리 딩 투 자 증 권

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4년 02월 24일

#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엔화의 추가 약세

**선진국 주식시장 미국 횡보, 유럽 소폭 상승**

- **전고점 수준 근접하며 미국 주식시장 숨고르기, 이머징 시장 차별화 장세 진행**

지난 주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 등 미국 주택지표는 한파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Markit 제조업 PMI 가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가 진행되면서 전고점에 근접한 수준에 이른 미국 주식시장도 추가 상승모멘텀 부재로 횡보세를 보였다. 유럽시장도 제조업 PMI 부진과 함께 독일 ZEW 경기예상지수 하락 등으로 독일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실업률, 소매판매 등 지표 부진에도 불구 물가안정으로 저금리 기조가 예상되는 영국과 프랑스는 강세를 보이는 등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아시아 이머징시장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이머징 시장은 전주말 중국 신규대출호조로 경기낙관론이 팽배하면서 강세를 보인 후 주 후반 중국 HSBC PMI 가 예상외의 부진세를 보이며 조정을 보여 중국 주식시장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동남아 주식시장은 정정이 불안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3% 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러시아등 이머징 유럽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증시는 약세를 보여 이머징 증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엔저 불구 일본 무역적자 폭 확대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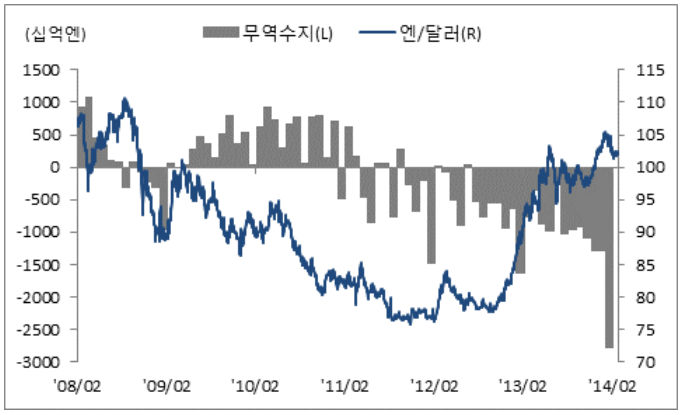
한편 지난 주 발표된 1 월 일본 무역수지는 2.7 조엔 적자를 기록하여 2012 년 7 월 이후 19 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1 월 수출은 5.25 조엔으로 YoY+9.5% 증가한 반면 수입은 8.43 조 엔으로 YoY+25.0% 급증했다. 2012 년 70 엔대 후반부터 진행된 엔화 약세 과정에서 지난 해 초반까지는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0 엔 대를 돌파한 작년 중반 이후 오히려 적자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수출물가 개선 속도보다 수입물가 상승부담이 더 커 추가 엔저 가능성 감소**

또한, 2012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수출, 수입물가도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입물가보다 수출물가의 상대적 하락폭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출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상황에서 추가적인 엔저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면이 클 것으로 보여 엔/달러 환율은 현재의 100~105 엔 밴드를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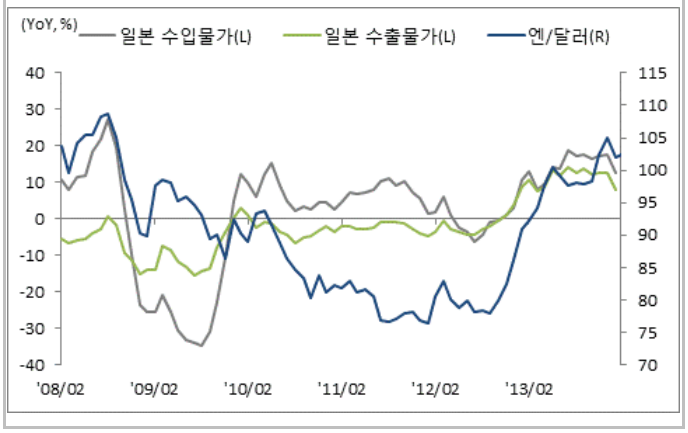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지난 해 700 억불을 상회한 경상흑자를 감안할 때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요인은 있으나, 엔화의 추가 약세요인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 요인 중 하나는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주 엔화 약세로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본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Exhibit 1 엔/달러 환율과 일본 무역수지**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엔/달러 환율과 일본수출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지역별주식시장전망

- **미국**

지난 주 미국 증시는 주택 시장 부진과 제조업 지표 호조 속에 보합세로 마감했다. 한편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약한 경제지표가 지속된다면 자산 매입프로그램이 2015 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투자 의견과 겨울 한파 영향에 따른 경제 지표 부진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태도 역시 차이가 있어 시장은 갈팡질팡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3 월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사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 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는 27 일 1 월 내구재주문, 1 월 신규주택매매, 2 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4 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있다. 한파 영향이 가시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 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12 월 소매판매와 주거용 투자부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영향으로 2.5%를 기록하며 이전치 3.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표 발표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은 소폭의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주택, 소매업 관련 기업들이 있다. 최근 주택 지표, 소매업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5 일 홈디포, 메이시스, 26 일 타깃, JC 페니, 27 일 베스트바이, GAP 이 발표될 예정이며 홈디포, 타깃, 베스트바이, 타깃의 4 분기 EPS 가 3 분기를 하회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조성돼 있다. 한편 미국 옐런 Fed 의장은 27 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 **유럽**

지난 주 유로존의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증시는 국가별로 차별화를 보이며 제한된 수준으로 반응했다. 영국 증시가 통화완화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그리스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이 발생하며 부진했다. 한편 국가별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리스가 사상 첫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스페인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 했으며 프랑스 CAC40 지수는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번 주에도 유로존 전체의 경제 지표와 더불어 각 국가별로의 차별화된 지표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24일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속보치와 28일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으로, 두 지표 모두 유로존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지해줄 전망이다. 독일은 4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4분기 자본투자, 건설투자, 국내 수요, 수출, 수입을 발표하는데 투자와 수요가 부진한 반면 글로벌 경기 개선 영향으로 수출, 수입은 개선세를 보였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한편 최근 유로존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부진한 와중 유로존의 소비 관련 지표는 남유럽 지역의 소매판매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24일, 27일 EU-브라질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 **아시아**

금주 중국 증시는 주말에 발표되는 1월 제조업 PMI외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하다. 3월 1일 통계국에서 발표 예정인 1월 제조업 PMI는 춘절 영향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50.5)보다 둔화된 50.1로 컨센서스가 조성되어 있다. 한편, 3월 3일 개최되는 양회를 앞두고 환경보호 등 양회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견조한흐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고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분기 건설수주액이 사상최대를 보임에 따라 국내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자재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4일 MWC에서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쉽 스마트폰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개발방향에 지표가 됨을 감안할 때 IT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철강/소재업채의 업황 개선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 경쟁사들의 가동률 상승으로 충분한 가격 개선을 보이기 힘들어 실적 개선세는 소폭 둔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 1-1. 미주지역 Review

### ➢ 경제

미국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한파와 폭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 주택재고 부족 등의 여파로 주택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1월 미국의 주택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6% 급감했고, 건축 허가 건수도 전월대비 5.4% 감소했다. 기존주택매매건수도 462만건으로 전월 대비 5.1% 줄었다. 평균 매매가격은 18만 8900달러로 전년대비 10.7% 올랐고 재고량은 4.9개월치로 전월 4.6개월보다 소폭 증가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주택 지표의 부진을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마킷 2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은 한파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제 지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보다 3000건 감소한 33만6000건을 기록하여 긍정적이었다. 또 미국이 집계 방식을 바꾼 후 처음으로 공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몇몇 위원이 실질금리 상승을 근거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주장했고, 실업률이 포워드 가이던스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과 관련 대부분 위원이 동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하였다. 한편 미 연준은 미국 내의 외국계 은행도 미국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따를 것을 요구,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은행들은 완충자본과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 주식

지난 주 미국 증시는 주택 시장 지표가 부진했지만 2월 마킷 PMI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지표 혼조세에 따라 주식 시장도 보합세로 마감했다. 월요일 휴장한 가운데 주간단위로 S&P500지수와 다우지수가 각각 0.1%, 0.3%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했다. 섹터별로는 경기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가 0.7% 상승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섹터도 강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 섹터는 모멘텀은 여전히 약하지만 펀드멘털 개선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관련주인 에너지, 소재 섹터는 천연가스 가격이 전 주 대비 17.5%, 은선물 가격이 6.8%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강세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소비 관련 섹터는 부진했다.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홈디포, 레나(LEN)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소비재 섹터가 0.1% 하락했고, 금융 섹터는 0.9%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금융 섹터의 12M EPS 이익 추정치가 다른 섹터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필수소비재 섹터 구성하는 대표 종목인 코카콜라, 월마트가 지난 주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필수소비재 섹터는 0.7%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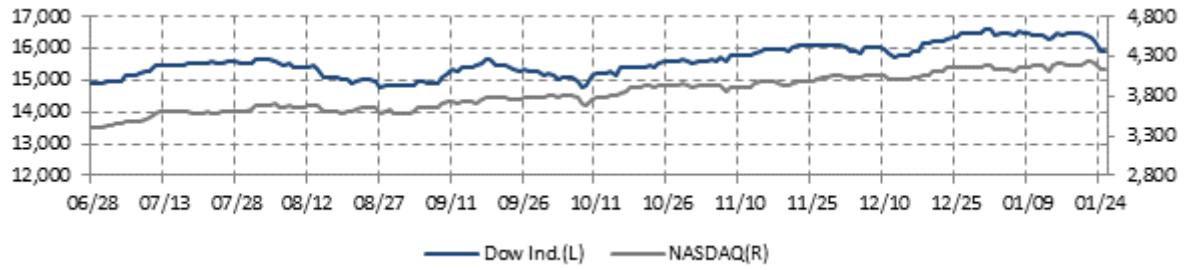
### ➢ 채권 & 외환

한파로 미국 성장률 전망에 제동이 걸리면서 채권 시장 투자심리도 덩달아 얼어붙었다. 미국 주택 지표와 산업 지표들이 부진을 보이면서 2년물과 10년물 사이 수익률 스프레드가 3주만에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주 부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 27일 옐런 연준 의장 상원 증언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망세가 높아지고, 경제 지표 부진이 혹한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을 감안해 괴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존재, 반등이 예상된다. 제조업 PMI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변화치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시장 대비 | 직전 대비 |
| 발표 | 2014-02-18 | 미국 | 제조업지수 (뉴욕주) | | 8.50 | 4.48 | 12.51 | -4.02 | -8.03 |
| 발표 | 2014-02-19 | 미국 | NAHB 주택시장지수 | | 56.00 | 46.00 | 56.00 | -10.00 | -10.00 |
| 발표 | 2014-02-19 | 미국 |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 (%) | | -4.10 | -2.00 | | -2.10 |
| 발표 | 2014-02-19 | 미국 | PPI (식품및에너지제외) 전년비 | (%) | 1.40 | 1.30 | 1.20 | -0.10 | 0.10 |
| 발표 | 2014-02-19 | 미국 | 주택착공건수 전월비 | (%) | -4.90 | -16.00 | -9.80 | -11.10 | -6.20 |
| 발표 | 2014-02-19 | 미국 | 건축허가 (전월대비) | (%) | -1.60 | -5.40 | -3.00 | -3.80 | -2.40 |
| 발표 | 2014-02-20 | 미국 | CPI (전년대비) | (%) | 1.60 | 1.60 | 1.50 | 0.00 | 0.10 |
| 발표 | 2014-02-20 | 미국 | CPI 식품에너지제외전년비 | (%) | 1.60 | 1.60 | 1.70 | 0.00 | -0.10 |
| 발표 | 2014-02-20 | 미국 |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 (천) | 335.00 | 336.00 | 339.00 | 1.00 | -3.00 |
| 발표 | 2014-02-20 | 미국 |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 (천) | 2,970.00 | 2,981.00 | 2,953.00 | 11.00 | 28.00 |
| 발표 | 2014-02-20 | 미국 | Markit미국 PMI 잠정 | | 53.60 | 56.70 | 53.70 | 3.10 | 3.00 |
| 발표 | 2014-02-22 | 미국 | 기존주택매매 | (백만) | 4.67 | 4.62 | 4.87 | -0.05 | -0.25 |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 | 종가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MSCI AC World | 406.4 | 0.5 | 2.4 | 1.5 | -0.5 |
| 다우종합 | 16,103.3 | -0.3 | 1.4 | 0.2 | -2.9 |
| NASDAQ | 4,263.4 | 0.5 | 3.3 | 6.8 | 2.1 |
| S&P 500 | 1,836.3 | -0.1 | 2.6 | 1.7 | -0.7 |
| 멕시코 IPC | 39,724.6 | -2.4 | -3.1 | -3.6 | -7.0 |
| 브라질보베스파 | 47,380.2 | -1.7 | -0.9 | -10.3 | -8.0 |
| S&P 500 에너지 | 629.8 | 0.4 | 1.6 | -2.5 | -3.4 |
| S&P 500 소재 | 291.5 | 0.3 | 5.3 | 3.5 | -0.0 |
| S&P 500 산업재 | 441.6 | -0.3 | 2.6 | 1.5 | -2.4 |
| S&P 500 경기소비재 | 516.5 | -0.1 | 2.6 | 0.6 | -2.6 |
| S&P 500 필수소비재 | 426.3 | -0.7 | 0.0 | -4.0 | -3.7 |
| S&P 500 헬스케어 | 679.4 | 0.9 | 5.5 | 6.4 | 5.8 |
| S&P 500 금융 | 288.7 | -0.9 | 1.5 | -0.1 | -2.0 |
| S&P 500 IT | 589.9 | -0.5 | 2.5 | 6.8 | 0.8 |
| S&P 500 통신서비스 | 148.2 | 0.1 | -0.5 | -5.7 | -4.7 |
| S&P 500 유틸리티 | 205.4 | 0.7 | 6.3 | 5.0 | 6.3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 종목명 | 종가 (USD)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VODAFONE GROUP | 39.0 | 5.9 | -0.5 | 5.1 | -0.8 |
| BIOGEN IDEC INC | 347.1 | 5.6 | 11.8 | 21.5 | 24.2 |
| DIRECTV | 75.0 | 4.2 | 2.8 | 15.5 | 8.6 |
| EXXON MOBIL CORP | 95.0 | 3.9 | -2.9 | 0.0 | -6.1 |
| UNITEDHEALTH GROUP | 73.8 | 3.7 | 0.6 | 0.1 | -2.0 |
| PRICELINE.COM INC | 1,315.7 | 3.1 | 8.4 | 13.5 | 13.2 |
| WALT DISNEY CO/THE | 80.1 | 2.9 | 6.4 | 14.1 | 4.9 |
| FACEBOOK INC-A | 68.6 | 1.9 | 19.3 | 48.4 | 25.5 |
| COCA-COLA CO/THE | 37.2 | -3.8 | -6.8 | -8.0 | -10.0 |
| COMCAST CORP | 51.1 | -3.6 | -5.0 | 3.1 | -1.8 |
| APPLE INC | 525.3 | -3.5 | -4.8 | 1.0 | -6.4 |
| EXPRESS SCRIPTS | 74.0 | -3.4 | -0.9 | 11.5 | 5.4 |
| WAL-MART STORES INC | 73.1 | -3.0 | -3.0 | -8.4 | -7.1 |
| AMAZON.COM INC | 346.8 | -2.9 | -14.3 | -6.9 | -13.0 |
| STARBUCKS CORP | 72.6 | -2.9 | -1.4 | -10.8 | -7.4 |
| BANK OF AMERICA | 16.3 | -2.7 | -5.0 | 4.2 | 4.6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 주요 채권 | 종가(%) | 수익률(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국고채 10년 | 2.73 | -1.2 | -13.4 | -1.2 |
| 국고채 5년 | 1.53 | 0.9 | -16.7 | 18.6 |
| LIBOR 3M | 0.23 | -0.1 | -0.2 | -0.2 |
| EUR-LIBOR 3M | 0.26 | 0.1 | -1.9 | 8.6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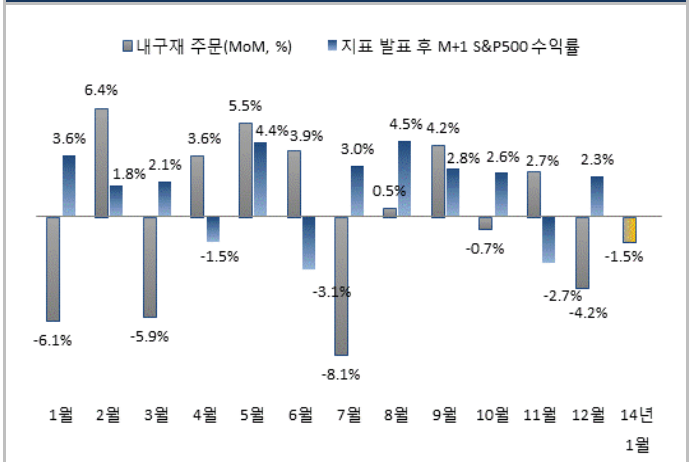
| 주요 환율 | 종가 | 통화가치 변동률(%)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달러 인덱스 | 80.24 | 0.1 | -1.1 | -0.6 |
| USD/EUR | 1.375 | 0.4 | 1.5 | 1.4 |
| JPY/USD | 102.51 | -0.7 | 1.7 | -1.2 |
| CNY/USD | 6.09 | -0.4 | -0.7 | 0.0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1-2. 미국경제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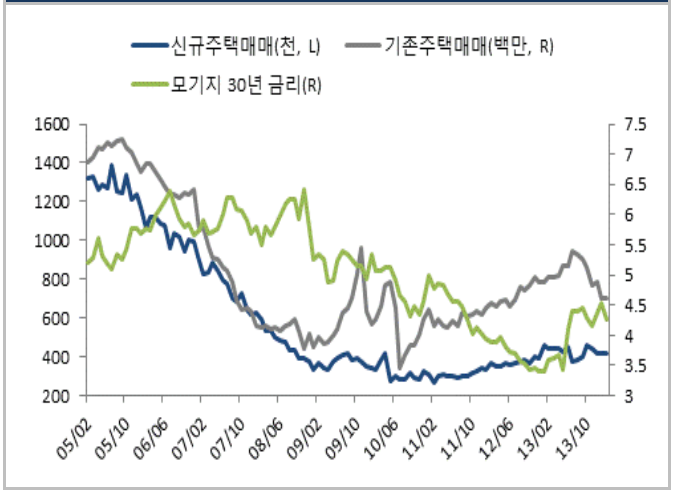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로는 27일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이 있다. 생산자가 향후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인도하는 주문 계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설비투자와 산업 생산의 선행지표로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소비 부문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2월 전월대비 4.3% 하락하며 제조업 경기 우려감이 제기된 바 있다. 1월 내구재 주문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주문 감소로 전월 대비 1.5% 하락하며 2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 폭이 줄어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4일 발표된 가동률이 78.5%로 이전치 79.2%와 예상치 79.3%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지난 주 발표된 2월 마킷 제조업 PMI 잠정치가 56.7로 크게 상승해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제조업 부진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익월 월말에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의 방향성과, 지표 발표후 한 달 간의 S&P500 움직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xhibit 11 참조)

**Exhibit 11 미국 전월 대비 내구재 주문**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2 신규주택매매와 기존주택매매, 모기지 30 년 고정 금리**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한편 이번 주에는 지난 주 기존주택매매에 이어 1월 신규주택매매 건수도 발표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주택매매의 흐름을 신규주택매매가 뒤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 단, 기존주택판매가 거래가 완료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규주택매매는 계약사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어 상관관계는 30% 정도 수준이다. 한파와 폭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 주택재고 부족 등의 여파로 주택 관련 지표는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다. 최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4.35% 수준으로 2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 기존주택매매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신규주택매매의 경우 기존주택매매보다 변동 폭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주 부진하게 발표되어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투자자들은 28일 한국 시간 10시 30분에 발표할 미국의 4분기 실질 GDP(전년분기대비%) 수정치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소매판매와 주거용 투자부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영향으로 수정치는 2.5%를 보이며 이전치 3.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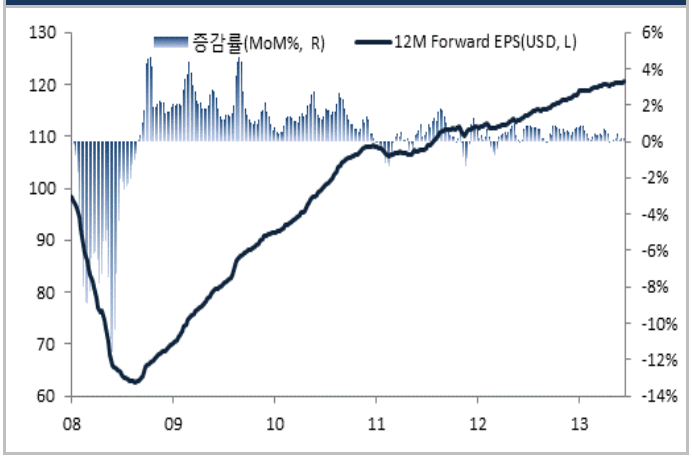
**Exhibit 13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예정**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 예정 | 2014-02-25 | 미국 | 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 | (%) | 0.30 | | 0.10 |
| 예정 | 2014-02-26 | 미국 |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 (%) | | | -4.10 |
| 예정 | 2014-02-27 | 미국 | 신규주택매매 (전월대비) | (%) | -3.40 | | -7.00 |
| 예정 | 2014-02-27 | 미국 |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 (천) | 335.00 | | 336.00 |
| 예정 | 2014-02-27 | 미국 | 내구재주문 | (%) | -1.50 | | -4.30 |
| 예정 | 2014-02-27 | 미국 | 운송제외내구재 | (%) | -0.20 | | -1.60 |
| 예정 | 2014-02-28 | 미국 | 4분기 GDP 연간화QoQ(수정치) | (%) | 2.50 | | 3.20 |
| 예정 | 2014-02-28 | 미국 | 개인소비 | (%) | 2.90 | | 3.30 |
| 예정 | 2014-02-28 | 미국 | 미시간대기대지수 | | 81.20 | | 81.20 |
| 예정 | 2014-03-01 | 미국 | 미결주택매매 (전년대비) | (%) | -9.70 | | -6.10 |

## 1-3. 미국주식시장 Preview–섹터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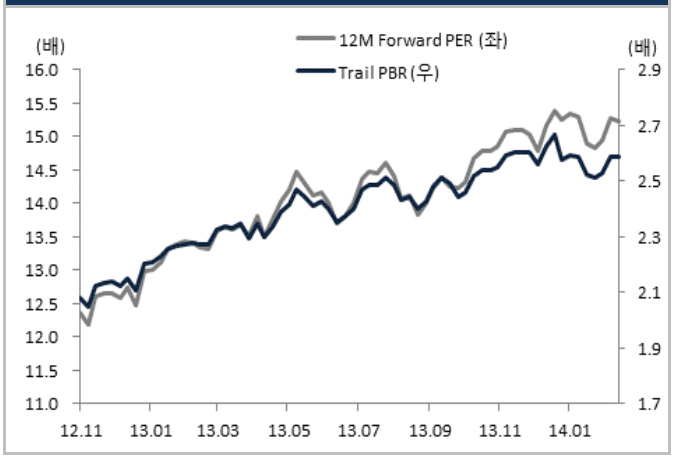
연초 이후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정 국면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S&P500의 12M FWD EPS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추정치의 월간 변화율은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또 12M FWD PER와 Trail PBR은 각각 15.2배, 2.6배 수준을 보이며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소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섹터, 업종, 종목별 차별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최근 헬스케어, 유틸리티 섹터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M&A 이슈와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작용하며 조정 장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한편 필수소비재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hibit 14S&P500 12M FWD EPS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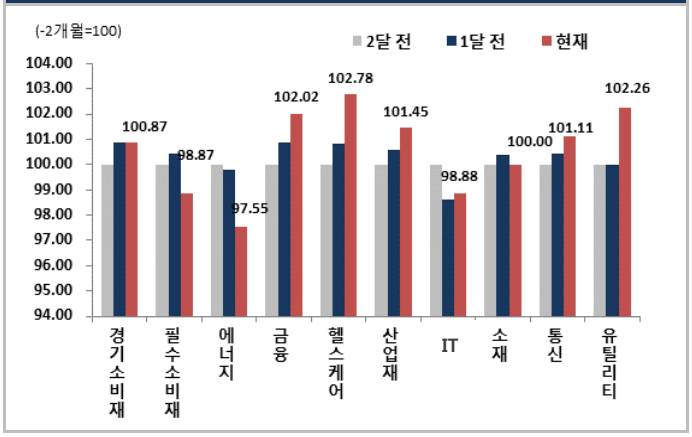
**Exhibit 15S&P500 섹터별 12M FWD EPS 추정치 변화**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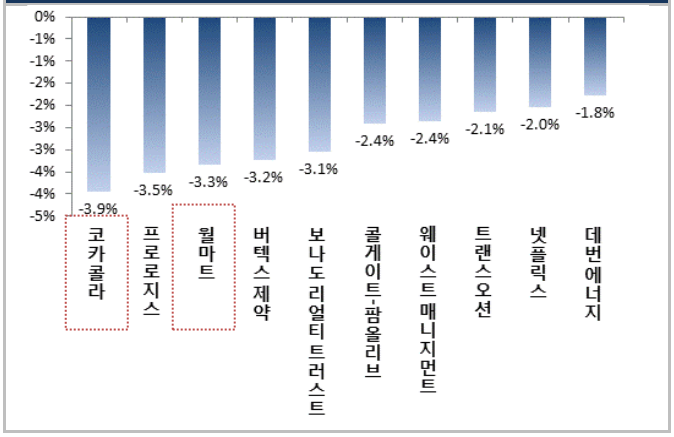
필수 소비재 섹터는 지난 해 경기소비재가 41% 상승하는 동안 22% 상승에 그쳤다. 또 최근 주가 조정 기간에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섹터가 주목 받으며 유틸리티가 연초 이후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와중에도 필수소비재 섹터는 약 3% 하락하며 섹터 중 하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S&P500 시가총액 상위 250 기업 중 주간 단위로 12M FWD EPS 추정치 하향 폭이 큰 기업들을 살펴보면 지난 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와 월마트가 있다. 각각 전주 대비 3.9%, 3.3% 하향 조정됐다. 아마존닷컴(AMZN), 프라이스라인닷컴(PCLN)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월마트(WMT), 코스트코(COST), 타겟(TGT) 등 대형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가 줄어들고, 해외시장 성장세 둔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표주인 코카콜라(KO)가 부진한 점이 필수소비재 섹터의 저조한 수익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hibit 16 S&P500 섹터별 12M FWD EPS 추정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S&P500 250 개 기업 12M FWD EPS 추정치(주간%)**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또한, 미국이 경기 회복 국면이 진행되고 소비 부문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필수소비재 섹터가 부진한 이유는 대표 종목들의 실적 부진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 주거자들의 임금은 제자리 수준을 보이는 반면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대부분 가구들이 음식, 의류 등 각종 생필품 구입에 사용해야 할 돈을 임대나 주택담보 대출이자지불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홈디포(HD), 로우스(LOW) 등 주택 관련 업종이 포함된 경기소비재 섹터가 2013년 주택 경기 회복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수소비재 섹터가 부진했던 이유로 작용했다. 필수소비재 섹터 업황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한파 영향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필수소비자 대비 타 섹터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뚜렷한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2-1. 유럽지역 Review

### ➢ 경제

지난 주 유로존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유로존 경제 대국 독일의 2 월 ZEW 전망치는 55.7 을 기록하며 예상치(61.5)를 하회했고, 2 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4.7 을 기록하며 예상치와 이전치 56.5 를 하회했다. 이러한 점이 영향을 줘 유로존 2 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3 을 기록하며 5 개월 만에 반락했다. 신흥국과 중국 성장 둔화가 유로존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12 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비 20 억유로 축소된 213 억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영국의 지난해 4 분기 실업률은 예상과 달리 7.2%로 상승했다. 영국의 1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9%(YoY)를 기록하면서 예상치(2.0%)를 하회해 2009 년 11 월 이후 4 년만에 1% 대에 진입했고 소매 판매도 부진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영국 중앙은행은 0.5%의 최저금리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대표가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지명되면서 이탈리아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 ➢ 주식

지난 주 범유럽 국가 지수인 Euro Stoxx 50 지수가 0.4% 상승에 그친 가운데 유로존 국가별로 차별화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선진 유럽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영국이 2.6%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영국의 실업률은 7.2% 기록하며 지난 2 월 이후 처음 상승했고, 영국의 1 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도 부진하면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로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세 등이 프랑스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프랑스 PMI 지표 부진에도 CAC 40 지수는 주간 단위로 0.9%하며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진 이후 5 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포르투갈이 전주의 4 분기 깜짝 경제 성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1.3% 상승했다. 반면 그리스 증시는 그리스 GDP 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업 호조로 사상 처음 경상수지 흑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2.4% 하락했다. 스페인 IBEX35 지수의 주간 수익률은 0.6% 하락했다. 하지만 주 후반 무디스는 스페인의 은행 시스템 부문 개선 등 경제 구조개혁을 반영해 국가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한 단계 올렸다. 종목별로 영국 보다폰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지분 매각 소식에 8.3% 상승했고, 파리에서 브이그텔레콤도 강세를 보이는 등 통신서비스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자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산업재, 소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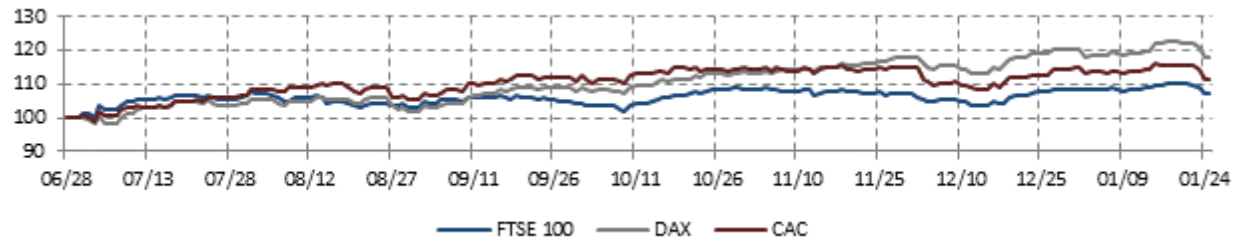
### ➢ 채권 & 외환

유럽의 국채가격은 대체로 상승했다. 이탈리아 10 년물 수익률은 렌치 총리가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 주 연속 강세를 보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10 년물 수익률도 각각 4.0, 1.2bp 하락했다. 반면 독일 10 년물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유로존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렌치 효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Exhibit 18 지난 주 유럽 경제 지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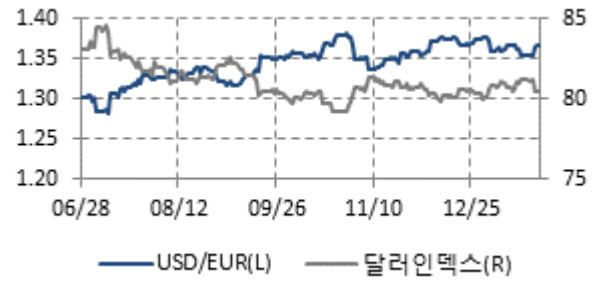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변화치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시장 대비 | 직전 대비 |
| 발표 | 2014-02-18 | 유로존 | ECB 경상수지 SA | (십억) | | 21.30 | 23.50 | | -2.20 |
| 발표 | 2014-02-18 | 영국 | CPI (전년대비) | (%) | 2.00 | 1.90 | 2.00 | -0.10 | -0.10 |
| 발표 | 2014-02-18 | 독일 | ZEW 서베이예상 | | 61.50 | 55.70 | 61.70 | -5.80 | -6.00 |
| 발표 | 2014-02-18 | 유로존 | ZEW 서베이예상 | | | 68.50 | 73.30 | | -4.80 |
| 발표 | 2014-02-19 | 영국 | ILO 실업률 3개월 | (%) | 7.10 | 7.20 | 7.10 | 0.10 | 0.10 |
| 발표 | 2014-02-20 | 독일 | PPI 전년비 | (%) | -0.80 | -1.10 | -0.50 | -0.30 | -0.60 |
| 발표 | 2014-02-20 | 프랑스 | CPI (전년대비) | (%) | 0.80 | 0.70 | 0.70 | -0.10 | 0.00 |
| 발표 | 2014-02-20 | 프랑스 | PMI 제조업 | | 49.50 | 48.50 | 49.30 | -1.00 | -0.80 |
| 발표 | 2014-02-20 | 프랑스 | PMI 서비스 | | 49.40 | 46.90 | 48.90 | -2.50 | -2.00 |
| 발표 | 2014-02-20 | 독일 | PMI 제조업 | | 56.30 | 54.70 | 56.50 | -1.60 | -1.80 |
| 발표 | 2014-02-20 | 독일 | PMI 서비스 | | 53.40 | 55.40 | 53.10 | 2.00 | 2.30 |
| 발표 | 2014-02-20 | 유로존 | PMI 제조업 | | 54.00 | 53.00 | 54.00 | -1.00 | -1.00 |
| 발표 | 2014-02-20 | 유로존 | PMI 서비스 | | 51.90 | 51.70 | 51.60 | -0.20 | 0.10 |
| 발표 | 2014-02-20 | 유로존 | PMI Composite | | 53.10 | 52.70 | 52.90 | -0.40 | -0.20 |
| 발표 | 2014-02-21 | 영국 | 소매 판매 (자동차 포함) 전년비 | (%) | 5.00 | 4.30 | 5.30 | -0.70 | -1.00 |
| 발표 | 2014-02-21 | 영국 | 소매판매 (자동차포함) 전월비 | (%) | -1.00 | -1.50 | 2.60 | -0.50 | -4.10 |

**Exhibit 19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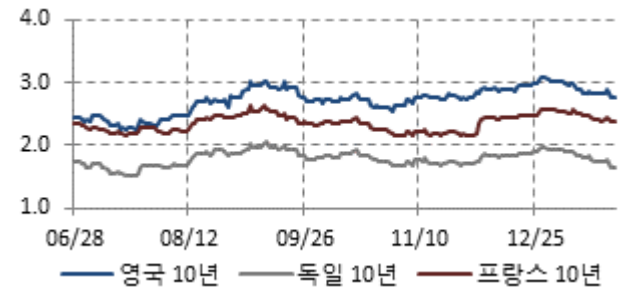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0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2 유럽 주요국 수익률**

| | 종가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MSCI WORLD | 406.4 | 0.5 | 2.4 | 1.5 | -0.5 |
| MSCI EMU | 104.2 | 0.4 | 3.6 | 3.7 | 1.9 |
| FTSE EUROTOP 100 | 2,710.6 | 0.9 | 3.1 | 2.9 | 1.6 |
| Euro Stoxx 600 | 336.1 | 0.8 | 3.5 | 4.1 | 2.4 |
| Euro Stoxx 50 | 3,131.7 | 0.4 | 3.4 | 2.5 | 0.7 |
| 영국 FTSE 100 | 6,838.1 | 2.6 | 2.6 | 2.5 | 1.3 |
| 독일 DAX | 9,657.0 | -0.1 | 2.8 | 4.8 | 1.1 |
| 프랑스 CAC 40 | 4,381.1 | 0.9 | 5.3 | 2.4 | 2.0 |
| 이탈리아 FTSE MIB | 20,391.9 | -0.2 | 5.3 | 8.3 | 7.5 |
| 스페인 IBEX 35 | 10,071.0 | -0.6 | 2.0 | 4.1 | 1.6 |
| 포르투갈 PSI 20 | 7,228.5 | 1.3 | 6.7 | 13.8 | 10.2 |
| 그리스 ASE | 1,250.0 | -2.4 | 5.6 | 6.9 | 7.5 |
| 스위스 SPI | 8,055.8 | 0.2 | 2.8 | 2.6 | 2.8 |
| 러시아 RTS | 1,315.5 | -2.1 | -3.6 | -9.0 | -8.8 |
| 터키 ISE 100 | 63,885.6 | -1.5 | -0.8 | -15.5 | -5.8 |
| 남아공 TOP40 | 42,953.0 | 2.0 | 2.9 | 8.4 | 3.5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 국가 | 종목명 | 섹터 | 시가총액 (USDbn) | 수익률(%) (1 주) | (1 개월) |
|---|---|---|---|---|---|
| 영국 | WOOD GROUP (JOHN) PLC | 에너지 | 4.6 | 10.8 | 10.1 |
| 프랑스 | TECHNIP SA | 에너지 | 11.2 | 9.7 | 8.1 |
| 영국 | VODAFONE GROUP PLC | 통신서비스 | 190.7 | 8.3 | -0.4 |
| 영국 | HAMMERSON PLC | 금융 | 6.9 | 7.3 | 9.7 |
| 영국 |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 필수소비재 | 39.4 | 6.4 | 7.5 |
| 프랑스 | VEOLIA ENVIRONNEMENT | 유틸리티 | 9.7 | 6.2 | 4.2 |
| 영국 | RSA INSURANCE GROUP PLC | 금융 | 6.2 | 5.6 | 1.0 |
| 영국 | BRITISH LAND CO PLC | 금융 | 11.8 | 5.5 | 5.0 |
| 영국 | IMI PLC | 산업재 | 6.9 | -11.4 | -0.2 |
| 영국 | VEDANTA RESOURCES PLC | 소재 | 3.8 | -6.5 | -5.0 |
| 프랑스 | VALLOUREC | 산업재 | 6.6 | -6.1 | -1.9 |
| 프랑스 | ALSTOM | 산업재 | 8.4 | -5.8 | -15.6 |
| 영국 | BAE SYSTEMS PLC | 산업재 | 21.8 | -4.8 | -5.2 |
| 프랑스 | SAFRAN SA | 산업재 | 29.7 | -4.4 | -4.0 |
| 영국 | INTERCONTINENTAL HOTELS GROU | 경기소비재 | 8.3 | -3.9 | -5.5 |
| 영국 | EVRAZ PLC | 소재 | 2.1 | -3.8 | -19.8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4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 주요 환율/채권 | 종가(%) | 변동률(%, 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USD/EUR** | 1.37 | 0.4 | 1.5 | 1.4 |
| **영국 10년** | 2.8 | -1.2 | -10.5 | -0.9 |
| **독일 10년** | 1.7 | -1.7 | -9.5 | -8.5 |
| **프랑스 10년** | 2.3 | -2.3 | -18.4 | 5.1 |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5 남유럽 채권 지표**

| 주요국 채권 | 종가 | 변동률(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이탈리아 10년** | 3.6 | -8.9 | -23.3 | -48.0 |
| **스페인 10년** | 3.5 | -4.0 | -18.7 | -55.5 |
| **포르투갈 10년** | 4.9 | -1.2 | -12.6 | -101.8 |
| **그리스 10년** | 7.6 | 6.6 | -55.4 | -1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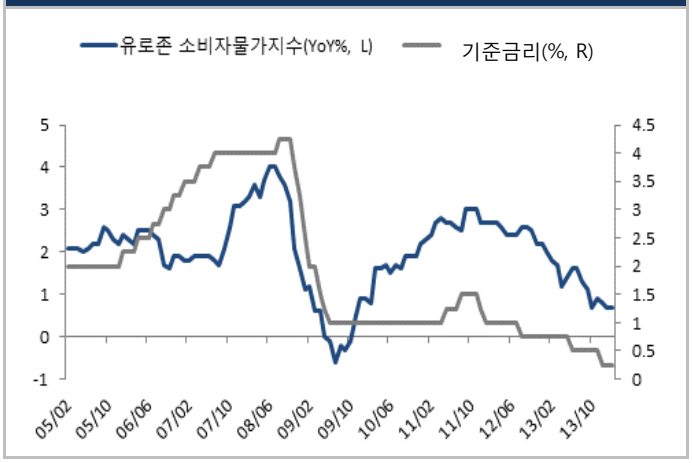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2-2.유럽지역 Preview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반면, 이러한 점이 오히려 경기 부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주 24일 발표된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 속보치 역시 1%를 하회한 0.7%로 예상되며 28일 발표할 유로존 실업률도 12%를 기록하며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당분간 통화완화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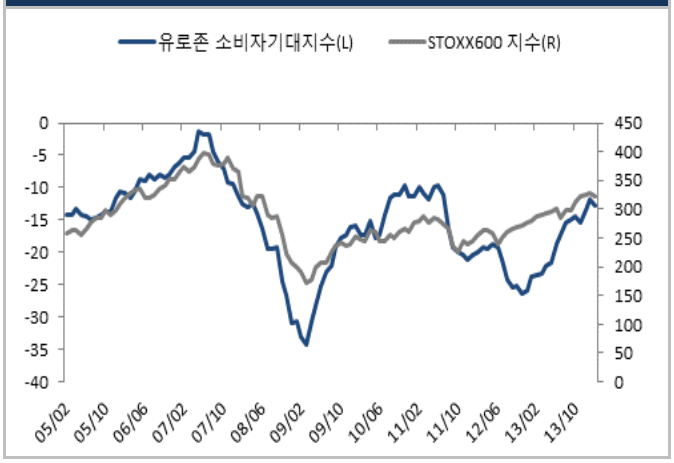
한편, 범유럽국가지수인 STOXX600 지수와는 상관관계가 무려 80%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 2월 확정치가 금주에 발표된다. 지난 주 2월 잠정치 발표에서 -12.7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금주 발표될 확정치에서 -12.7을 유지하며 위축세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신흥국 우려, 중국 지표 부진, 미국 한파 영향이 유로존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일 뿐 2013년 이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Exhibit 26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금리**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7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 VS STOXX60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유로존의 소비 관련 지표는 남유럽 지역의 소매판매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12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5.8% 감소한 바 있어 감소 지속 혹은 개선세 전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25일 이탈리아도 소매판매를 발표하며 전년대비 0.2% 상승하며 이전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27일 발표될 경기기대지수도 98을 기록하며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 28일 12월 소매판매를 발표한다. 한편 스페인은 27일 4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분기 대비 0.3%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독일 역시 4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4분기 자본투자, 건설투자, 국내 수요, 수출, 수입을 발표하는데 투자와 수요가 부진한 반면 글로벌 경기 개선 영향으로 수출, 수입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Exhibit 28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예정**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 예정 | 2014-02-24 | 독일 | IFO 예상 | | 108.10 | | 108.90 |
| 예정 | 2014-02-24 | 유로존 | CPI (전년대비) | (%) | 0.70 | | 0.70 |
| 예정 | 2014-02-24 | 유로존 | CPI 근원전년비 | (%) | 0.80 | | 0.80 |
| 예정 | 2014-02-24 | 영국 | 전국주택가격 NSA YoY | (%) | 9.00 | | 8.80 |
| 예정 | 2014-02-25 | 독일 | GDP SA 전기대비 | (%) | 0.40 | | 0.40 |
| 예정 | 2014-02-25 | 독일 | 수출QoQ | (%) | 1.70 | | 0.10 |
| 예정 | 2014-02-25 | 독일 | 수입QoQ | (%) | 1.30 | | 0.80 |
| 예정 | 2014-02-26 | 영국 | GDP(전분기대비) | (%) | 0.70 | | 0.70 |
| 예정 | 2014-02-27 | 유로존 | 경기기대지수 | | 100.70 | | 100.90 |
| 예정 | 2014-02-27 | 유로존 | 기업환경지수 | | 0.20 | | 0.19 |
| 예정 | 2014-02-27 | 독일 | CPI (전월대비) | (%) | 0.60 | | -0.60 |
| 예정 | 2014-02-27 | 유로존 | 소비자기대지수 | | -12.70 | | -12.70 |
| 예정 | 2014-02-27 | 독일 | CPI (전년대비) | (%) | 1.30 | | 1.30 |
| 예정 | 2014-02-28 | 독일 | 소매판매YoY | (%) | -1.70 | | -2.40 |
| 예정 | 2014-02-28 | 유로존 | 실업률 | (%) | 12.00 | | 12.00 |
| 예정 | 2014-02-28 | 유로존 | CPI 예상YoY | | 0.01 | | |
| 예정 | 2014-02-28 | 유로존 | CPI 근원전년비 | | 0.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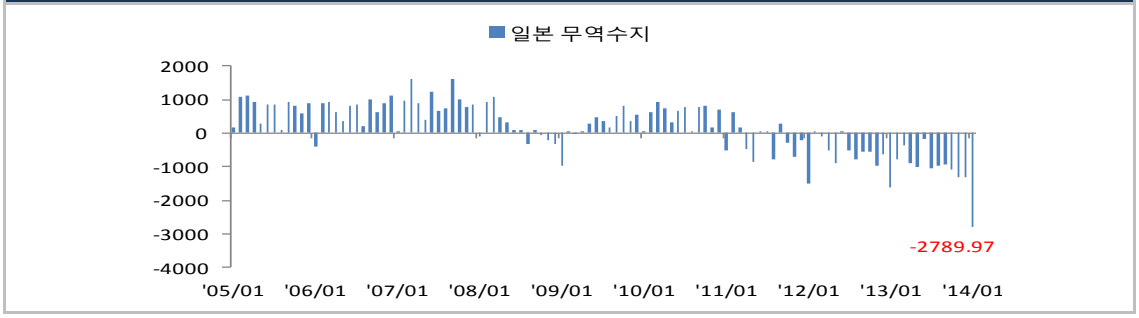
## 3-1. 아시아지역 Review

### ➢ 경제

중국 2 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가 계절적 영향으로 시장 컨센서스(49.5)를 하회한 48.3 으로 7 개월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세부지표로 볼 때 신규주문은 전월 대비 2.0%p 둔화, 생산량은 전월 대비 1.6%p 둔화되는 등 주요 세부항목의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제조업 성장 추세가 약해지는 한편 춘절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제조업 지표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무부가 발표한 1 월 FDI(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07.6 억 위안을 기록하여 YoY+16.1% 증가하였다. 그 중 서비스 분야의 FDI 는 YoY+57.02% 증가한 63.3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 월 무역수지는 2.7 조엔 적자를 기록하여 2012 년 7 월 이후 19 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하였다. 1 월수출규모는 5.25 조엔으로 YoY+9.5% 증가한 반면 수입규모는 8.43 조엔으로 YoY+25.0% 급증했다. 겨울철 난방용 전력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엔화 약세 지속으로 화력발전용 연료 수입액이 크게 불어났다. 4 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내수증대로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도 적자폭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4 분기 GDP 는 전분기대비 연율 1% 증가해 시장 컨센서스(2.8%)를 크게 하회하였다. 이는 엔저효과로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2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한 가운데, 정부투자 증가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등 내수부문의 성장세는 개선 되었다.

**Exhibit 29 일본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 (단위:JPYBn)**




*Source: CEIC, 리딩투자증권*

### ➢ 주식

지난주 중국 증시는 전주말 발표된 1 월 신규대출규모 호조로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20 일에 발표된 2 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최근 랠리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어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0.1% 소폭 하락하였다. 홍콩 증시는 블루칩이 강세를 보여 항셍지수가 전주 대비 1.2% 상승하였다. 반면 일본 증시는 1 월 무역 적자 확대, 지난해 4 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등 경제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4% 급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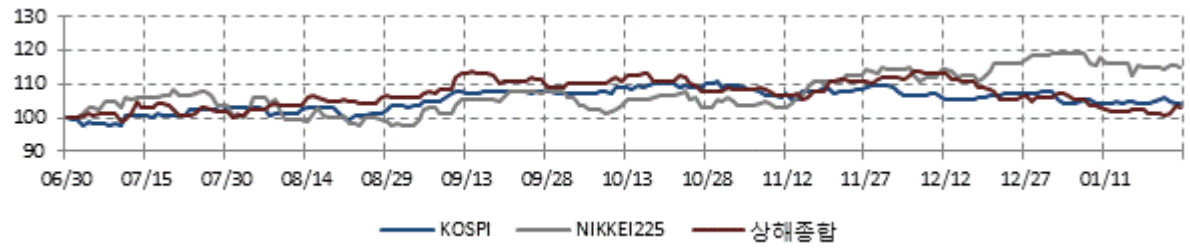
### ➢ 채권 & 외환

중국인민은행은 18 일과 20 일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총 1080 억 위안 규모의 14 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를 발행하여 춘절 전 자금수요로 공급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1 월 신규위안화 대출이 4 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탁상품 디폴트 등 신용위기 우려로 시장의 유동성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hibit 30 아시아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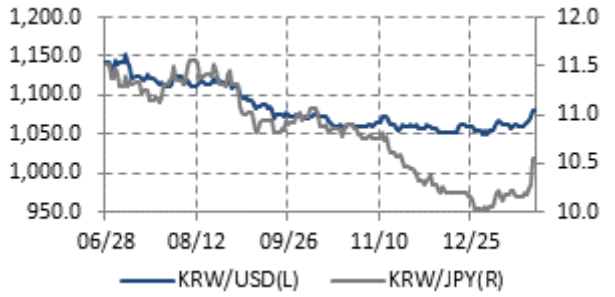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변화치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시장 대비 | 직전 대비 |
| 발표 | 2014-02-17 | 일본 | GDP 연간화 SA 전분기대비 | (%) | 2.80 | 1.00 | 1.10 | -1.80 | -0.10 |
| 발표 | 2014-02-17 | 일본 | 광공업생산MoM | (%) | | 0.90 | 1.10 | | -0.20 |
| 발표 | 2014-02-18 | 한국 | PPI 전년비 | (%) | | -0.30 | -0.40 | | 0.10 |
| 발표 | 2014-02-18 | 중국 | 외국인직접투자YoY | (%) | 2.50 | 16.10 | 3.30 | 13.60 | 12.80 |
| 발표 | 2014-02-20 | 일본 | 무역수지 | (십억) | -2,487.00 | -2,790.00 | -1,302.10 | -303.00 | -1,487.90 |
| 발표 | 2014-02-20 | 일본 | 수출YoY | | 12.70 | 9.50 | 15.30 | -3.20 | -5.80 |
| 발표 | 2014-02-20 | 일본 | 수입YoY | | 22.70 | 25.00 | 24.70 | 2.30 | 0.30 |
| 발표 | 2014-02-20 | 중국 | HSBC/Markit플래시제조업 PMI | | 49.50 | 48.30 | 49.50 | -1.20 | -1.20 |

**Exhibit 31 아시아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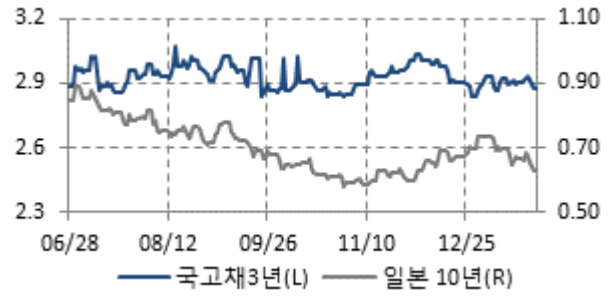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2 원화환율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33 한국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4 아시아주요국수익률**

| | 종가 | 수익률(%) |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MSCI Asia Pacific | 137.4 | 1.5 | -0.2 | -2.7 | -2.8 |
| MSCI EM | 959.3 | 0.2 | 1.0 | -4.9 | -4.3 |
| MSCI EM Asia | 432.8 | 0.8 | 0.8 | -2.5 | -3.0 |
| 한국 KOSPI | 1,957.8 | 0.9 | 0.9 | -2.4 | -2.7 |
| 일본 NIKKEI 225 | 14,865.7 | 3.9 | -3.4 | -3.4 | -8.8 |
| 중국상해종합 | 2,113.7 | -0.1 | 2.9 | -3.8 | -0.1 |
| 홍콩항생 | 22,568.2 | 1.2 | 0.5 | -4.8 | -3.2 |
| 대만가권 | 8,601.9 | 1.0 | 0.0 | 6.0 | -0.1 |
| 호주 ASX 200 | 5,438.7 | 1.5 | 3.8 | 1.9 | 1.6 |
| 뉴질랜드 NZX 50 | 4,927.6 | 0.8 | 1.1 | 2.3 | 4.0 |
| 인도 SENSEX 30 | 20,700.8 | 1.6 | -2.0 | 2.4 | -2.2 |
| 싱가포르 STI | 3,099.9 | 2.0 | 0.8 | -2.3 | -2.1 |
| 태국 SET | 1,304.2 | -0.6 | -0.8 | -4.0 | 0.4 |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4,646.2 | 3.1 | 4.7 | 7.6 | 8.7 |
| 필리핀PSEi | 6,308.4 | 3.2 | 1.9 | 3.7 | 7.1 |
| 베트남호치민 | 570.6 | -0.3 | 1.9 | 12.8 | 13.1 |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5 아시아주요종목등락률**

| 국가 | 종목명 | 섹터 | 시가총액 (USDbn) | 수익률(%) (1 주) | (1 개월) |
|---|---|---|---|---|---|
| 일본 | KANSAI ELECTRIC POWER CO INC | 유틸리티 | 10.4 | 8.0 | -4.3 |
| 한국 | LG UPLUS CORP | 통신서비스 | 4.3 | 7.5 | -1.4 |
| 한국 | SAMSUNG C&T CORP | 산업재 | 9.1 | 7.2 | 7.5 |
| 일본 | JX HOLDINGS INC | 에너지 | 12.8 | 6.9 | -0.9 |
| 일본 | SHOWA SHELL SEKIYU KK | 에너지 | 3.7 | 6.8 | -1.7 |
| 한국 | SHINHAN FINANCIAL GROUP LTD | 금융 | 19.7 | 6.0 | 0.8 |
| 한국 | KB FINANCIAL GROUP INC | 금융 | 13.9 | 5.9 | -0.3 |
| 중국 | TENCENT HOLDINGS LTD | IT | 139.5 | 5.8 | 10.2 |
| 중국 | DAQIN RAILWAY CO LTD -A | 산업재 | 17.5 | -7.7 | -0.8 |
| 한국 | LG HOUSEHOLD & HEALTH CARE | 필수소비재 | 6.4 | -6.6 | -21.5 |
| 중국 | GREAT WALL MOTOR CO LTD-A | 경기소비재 | 16.4 | -6.2 | -4.6 |
| 중국 | SANAN OPTOELECTRONICS CO L-A | IT | 6.2 | -6.0 | -9.4 |
| 한국 | NAVER CORP | IT | 21.7 | -6.0 | 0.1 |
| 중국 | ANHUI CONCH CEMENT CO LTD-A | 소재 | 15.3 | -4.7 | -5.4 |
| 중국 | INNER MONGOLIA BAOTOU STEE-A | 소재 | 8.7 | -3.5 | 0.7 |
| 홍콩 | CHINA UNICOM HONG KONG LTD | 통신서비스 | 31.0 | -3.4 | -3.6 |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6 아시아주요채권지표**

| 주요채권 | 종가(%) | 수익률(bp)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한국 국채 5년 | 3.18 | 1.6 | -10.0 | -12.5 |
| 일본 10년 | 0.60 | 0.2 | -7.5 | -2.7 |
| 중국 10년 | 4.53 | 6.1 | 2.6 | -8.7 |
| 호주 10년 | 4.22 | 11.3 | 3.2 | -10.3 |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37 달러환율추이**

| 주요환율 | 종가 | 통화가치변동률(%) | | |
|---|---|---|---|---|
| | | (1 주) | (1 개월) | (3 개월) |
| KRW/USD | 1,072.09 | -0.82 | -0.44 | -1.09 |
| JPY/USD | 102.51 | -0.69 | 1.75 | -1.21 |
| CNY/USD | 6.09 | -0.41 | -0.65 | 0.04 |
| AUD/USD | 1.11 | -0.64 | 1.18 | -2.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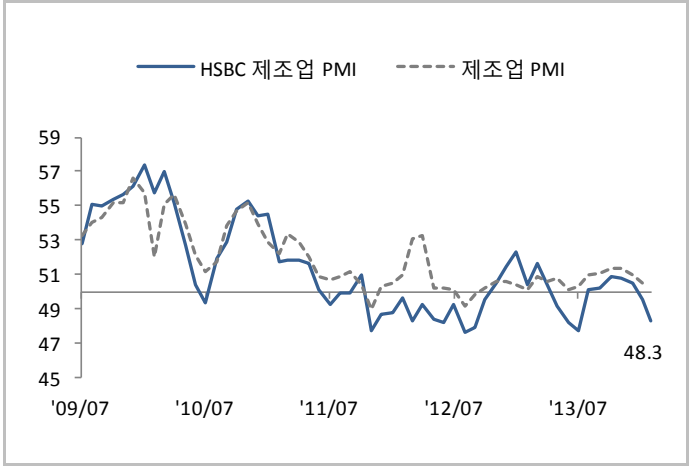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3-2. 중국, 일본지역 Preview

###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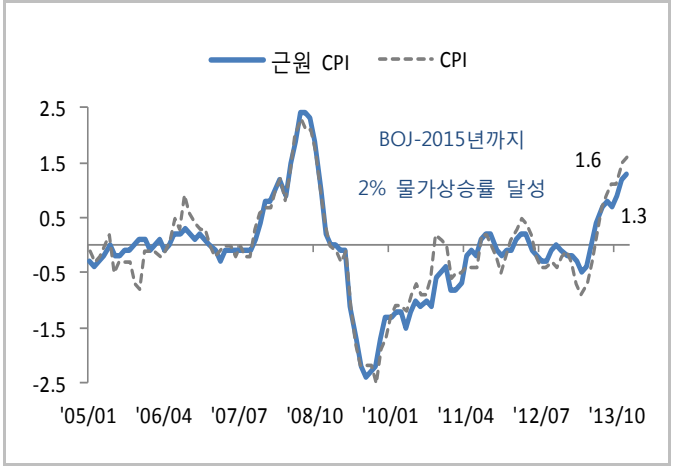
금주 중국 증시는 주말에 발표되는 1 월 제조업 PMI 이외에는 예정된 경제지표 발표가 거의 없다. 3 월 1 일 통계국에서 발표 예정인 1 월 제조업 PMI 는 춘절 영향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50.5)보다 둔화된 50.1 로 컨센서스가 조성되어 있다. 한편, 3 월 3 일 개최되는 양회를 앞두고 환경보호 등 양회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견조한 흐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hibit 38 중국 제조업 PMI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9 일본 근원 CPI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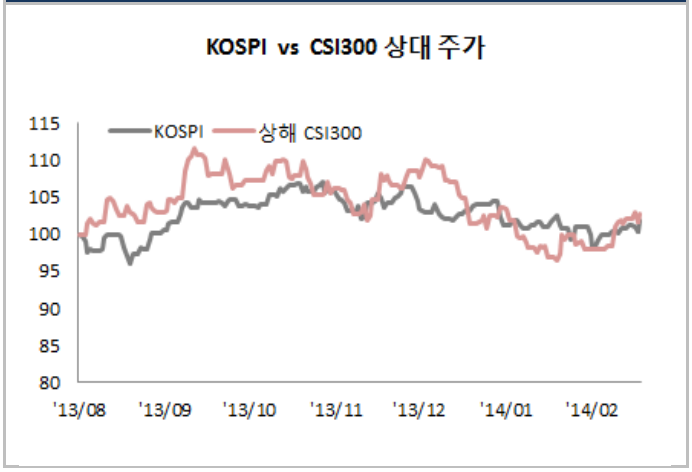
금주 발표 예정인 일본 1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컨센서스 1.3%로 조사돼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월 소비세 인상을 앞둔 사전 소비가 집중되어 1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Exhibit 40 주간 경제 지표 동향**

| 구분 | 일자 | 국가 | 지표명 | 단위 | 지표 | | |
|---|---|---|---|---|---|---|---|
| | | | | | 시장 예상치 | 발표치 | 직전치 |
| 예정 | 2014-02-27 | 한국 | 백화점매출 (전년대비) | (%) | | | -0.30 |
| 예정 | 2014-02-27 | 한국 | BoP경상수지 | ($백만) | | | 6,429.1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소매판매(전월대비) | (%) | 1.30 | | -1.1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총가계지출전년비 | (%) | 0.40 | | 0.7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실업률 | (%) | 3.70 | | 3.7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일자리대구직자비율 | | 1.04 | | 1.03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전국 CPI (전년대비) | (%) | 1.30 | | 1.6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전국 CPI (식품, 에너지제외/ 전년대비) | (%) | 0.70 | | 0.7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광공업생산MoM | (%) | 2.90 | | 0.90 |
| 예정 | 2014-02-28 | 일본 | 주택착공건수전년비 | (%) | 15.00 | | 18.00 |
| 예정 | 2014-03-01 | 한국 | 수출YoY | (%) | 2.70 | | -0.20 |
| 예정 | 2014-03-01 | 한국 | 수입YoY | (%) | 4.60 | | -0.90 |
| 예정 | 2014-03-01 | 한국 | 무역수지 | ($백만) | 1,700.00 | | 735.00 |
| 예정 | 2014-03-01 | 중국 | 제조업 PMI | | 50.10 | | 50.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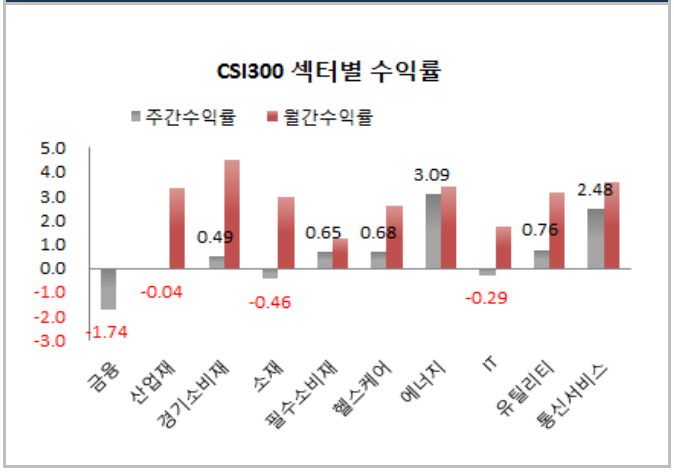
## 3-3. 중화권지역 Sector

**Exhibit 41 KOSPI VS CSI300 상대주가**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2 CSI300 섹터별 수익률**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중국 최대 석유기업인 시노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혼합소유제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해 개최한 18 차 3 중 전회에서 언급한 혼합소유제 도입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향후 국유기업 독점 사업 분야의 민간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노펙은 19 일, 5 개 사업 부문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큰 정제유 판매 사업부에 민간자본 투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 비율이 최대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로 향후 석유산업과 시노펙의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호재로 인하여 지난주 시노펙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Exhibit 43 국유개혁 신호탄 –시노펙 민간자본 유치 허용(FY2012)**

| 사업부문 | 매출규모(RMB BL) |
|---|---|
| 원유탐사개발 | 257,185 |
| 정유사업 | 1,270,912 |
| *정제유 판매* | *1,471,882* |
| 화학공업사업 | 411,964 |
| 본부 및 기타 | 1,312,970 |
| 총 매출액 | 4,724,913 |

Source :Company Data, 리딩투자증권

**Exhibit 44 시노링크&텐센트- 수수료 2bp '융진바오' 출시**

Source : 리딩투자증권

2 월 20 일, 텐센트와 시노링크 증권사가 합작하여 만든 '융진바오' 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중국 증권업계가 인터넷에 기반한 제로 수수료 시대에 진입하였다. 투자자들이 텐센트 주식 채널을 방문하여 온라인 계좌 개설시 2bp 수수료(일반 주식)만 지불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지불하는 인지세 등 기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증권사가 얻는 수수료 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된 19 개 증권사 중 17 개에 달하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로 수수료는 증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 해통증권(6837.HK), 중신증권(6030.HK), 초상증권(600999.SH)은 각각 4.89%, 2.27%, 3% 하락하였다.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불사하는 증권업계의 수수료 무료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브로커리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권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증권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전주 한국증시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와 미국 FOMC 회의록 공개에 보합을 보이다 신흥국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으로 0.9% 상승하였다.

중국 HSBC PMI 는 예상을 하회하였으나 미국 FOMC 회의록에서 양적완화 축소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한편, 주 후반 강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한국 증시는 상승하였다. 기업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1 분기 실적 개선기업이 강세를 보였고 건설업황 개선 기대로 건설, 건자재, 금융주가 상승하였다. 한편 차주 열리는 MWC 에서의 삼성전자 플래그쉽 스마트폰 공개 기대감으로 주 후반 삼선전자 및 스마트폰 부품주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hibit 45 증시주변자금현황**

| (십억원) | Close | 1W(△) | 1M(△) | 3M(△) | 6M(△) | YTD(△) |
|---|---|---|---|---|---|---|
| 고객예탁금 | 13,624.6 | -8 | 169 | -577 | -3,992 | -587 |
| 국내주식형펀드 | 84,301 | -232 | 25 | 341 | -7,562 | -1,078 |
| 신용융자(KSE+KOSDAQ) | 4,397 | 53 | 54 | -93 | -232 | 214 |
| MMF | 82,609 | -1,348 | 5,711 | 5,614 | 13,014 | 14,883 |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6 투자주체별매매동향**

| (누적,KSE+KSQ,십억원) | 주간 | 월간 | 3 개월 | 6 개월 | YTD |
|---|---|---|---|---|---|
| 외국인 | 136.9 | -2,197.6 | -3,883.5 | 10,704.7 | -2,492.1 |
| 기관투자가 | -30.9 | 2,007.5 | 4,637.9 | -4,148.5 | 1,044.3 |
| (연기금) | 145.5 | 816.4 | 2,445.6 | 5,183.0 | 1,177.5 |
| 개인 | -94.5 | 155.5 | 105.6 | -4,439.2 | 1,322.0 |
| 기타 | -11.5 | 34.6 | -860.1 | -2,117.0 | 125.9 |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7 글로벌증시대비국내증시변동**

| 섹터 | 주간수익률(%) | | |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 | |
|---|---|---|---|---|---|---|
| | 한국 | MSCIACWI | 편차 | 기관 | 외국인 | 개인 |
| **전체** | 0.9 | 0.5 | 0.4 | -43.9 | 112.0 | -73.8 |
| **에너지** | 1.8 | 0.9 | 0.9 | -11.9 | 36.7 | -30.2 |
| **소재** | -0.6 | 0.6 | -1.2 | -77.0 | -0.2 | 72.3 |
| **산업재** | 3.1 | 0.3 | 2.8 | 348.5 | -199.1 | -157.2 |
| **경기소비재** | -0.7 | 0.3 | -1.0 | 33.0 | -164.1 | 113.2 |
| **필수소비재** | -1.3 | 0.4 | -1.8 | -35.2 | -3.9 | 41.8 |
| **의료** | 2.3 | 1.3 | 0.9 | 13.7 | 33.3 | -47.2 |
| **금융** | 2.9 | 0.2 | 2.7 | 143.2 | -72.7 | -66.9 |
| **IT** | 0.8 | 0.2 | 0.6 | -406.9 | 407.8 | 12.4 |
| **통신서비스** | 3.2 | 1.7 | 1.5 | -4.9 | -6.3 | 11.2 |
| **유틸리티** | 0.8 | 1.3 | -0.5 | -46.4 | 80.5 | -23.1 |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8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수종목**

| 주간기관순매수 | | 주간외국인순매수 | |
|---|---|---|---|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 현대차 | 84.1 | 삼성전자 | 248.4 |
| 엔씨소프트 | 67.1 | SK하이닉스 | 117.7 |
| 롯데케미칼 | 38.5 | 한국항공우주 | 57.1 |
| 현대제철 | 35.8 | NAVER | 55.1 |
| 삼성증권 | 33.4 | LG디스플레이 | 48.4 |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9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도종목**

| 주간기관순매도 | | 주간외국인순매도 | |
|---|---|---|---|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종목명 | 순매수 (십억원) |
| 삼성전자 | -107.9 | 현대차 | -122.7 |
| 한국항공우주 | -64.2 | 엔씨소프트 | -63.7 |
| SK하이닉스 | -55.2 | 신한지주 | -63.5 |
| NAVER | -52.2 | 삼성증권 | -43.4 |
| 현대로템 | -38.1 | SK | -41.2 |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 4.원자재가격동향

미국 북동부를 덮친 한파가 일단락됨에 따라 상승하던 원유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며 2.2% 상승으로 마감하였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시기가 논의됨에 따라 금가격은 1.8% 상승하였고 은가격은 6.8% 상승을 보였으나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비철금속은 보합세를 보였다. 곡물가격은 캐나다 겨울밀 공급부족 우려와 남미 가뭄으로 커피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가격은 하락세를 보였고 BDI 지수는 6.2% 상승하였다.

**Exhibit 50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1 금과 LME 니켈**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2 옥수수와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3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낸드가격**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4 주요원자재가격동향**

| 주요원자재 | 종가 (USD) | 수익률(%) (1 주) | (1 개월) | (3 개월) | (YTD) |
|---|---|---|---|---|---|
| WTI(NYMEX) | 102.5 | 2.2 | 7.9 | 7.8 | 4.2 |
| Brent(ICE) | 109.9 | 0.7 | 3.6 | 1.1 | -0.4 |
| 천연가스(NYMEX) | 6.1 | 17.5 | 40.8 | 64.3 | 46.3 |
| 금(NYMEX) | 1,323.8 | 1.8 | 6.6 | 6.3 | 10.0 |
| 은(CME) | 21.8 | 6.8 | 9.6 | 9.0 | 12.4 |
| 구리(LME) | 7,155.0 | 0.1 | -2.5 | 1.9 | -2.8 |
| 아연(LME) | 2,040.0 | -0.1 | -2.3 | 8.0 | -0.7 |
| 니켈(LME) | 14,365.0 | 0.8 | -2.4 | 7.0 | 3.3 |
| 알루미늄(LME) | 1,771.0 | 1.5 | -1.5 | -0.8 | -1.6 |
| CRB 상품지수 | 301.6 | 3.1 | 6.7 | 9.6 | 7.6 |
| 밀(CBOT) | 605.5 | 1.9 | 6.4 | -8.0 | -1.1 |
| 옥수수(CBOT) | 459.0 | 2.8 | 6.2 | 4.9 | 6.7 |
| 대두(CBOT) | 1,360.3 | 2.2 | 7.6 | 7.4 | 6.5 |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 561.2 | 0.9 | 6.1 | 11.2 | 4.9 |
| NAND 16Gb MLC | 3.1 | -8.9 | -9.7 | -12.2 | -9.9 |
| DDR3 1G 1333MHz | 1.5 | -1.3 | 0.7 | 9.4 | 11.0 |
| Baltic Dry Index | 1,175.0 | 6.2 | -5.7 | -20.8 | -48.4 |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014**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